

마그마 (Mefenacet, Imazosulfuron) 음독 후 발생한 녹색 소변 1예

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천안병원 신장내과

심윤숙 · 박재호 · 길효욱 · 양종오 · 이은영 · 홍세용

서론 : 정상 요는 무색에서부터 호박색이다. 요 색은 질병 및 섭취한 물질 등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. 이 중 녹색 소변의 경우는 매우 드물며, 현재 Pseudomonas 감염증, Biliverdin, Methylene blue나 indigo blue 등의 투약에 의한 보고가 있다. 이에 유기제초제 음독 후 발생한 녹색 소변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증례 : 76세 여자 환자 내원 전날 유기제초제 (상품명 마그마; mefenacet, imazosulfuron) 약 150 cc 정도 음독 후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입술과 손, 혀의 청색증 있으면서 녹색 소변을 보여 본원으로 전원 되었다. 내원 당시 진찰 소견 상 혈압 150/70 mmHg, 맥박수 100회/분, 호흡수 22회/min, 체온 36.6℃였으며 급성 병색 소견 보였고, 입술, 혀, 손과 발끝에 청색증 소견보이면서 소변색은 녹색이었다. 검사실 소견에서 혈색소 12.6g/dL, T-bil 0.8 mg/dL이었다. 요검사상 색은 녹색이었고 pH 7.0, 요단백, 요당, 혈뇨는 관찰되지 않았다. 동맥혈 검사상 산소 분압 132 mmHg, 산소 포화도 98.8%였으며 말초 혈액 산소 포화도는 94%였다. Pseudomonas 감염증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. 환자 청색증 소견보여 methemoglobinemia 의심하에 methylen blue 치료 시행하였고, 약 7일 경과 후 녹색 소변은 정상화 되었다. 환자 평소 약간의 호흡 곤란 있었으며 양폐야에 천명음 소견보여 검사상 천식 진단 받고 외래 추적 중이다.

결론 : 녹색 소변은 매우 드물다. 본 환자처럼 methemoglobinemia로 오인되어 치료 될 수 있다. 아직 그 기전은 불명확하나 약제에 의한 녹색 소변의 경우는 여러 가능성을 감별해야한다. 본 환자의 경우 음독 7일 후에 소변 색이 정상화 되었으며 이런 음독으로 인한 녹색 소변의 경우는 최초의 보고이다.